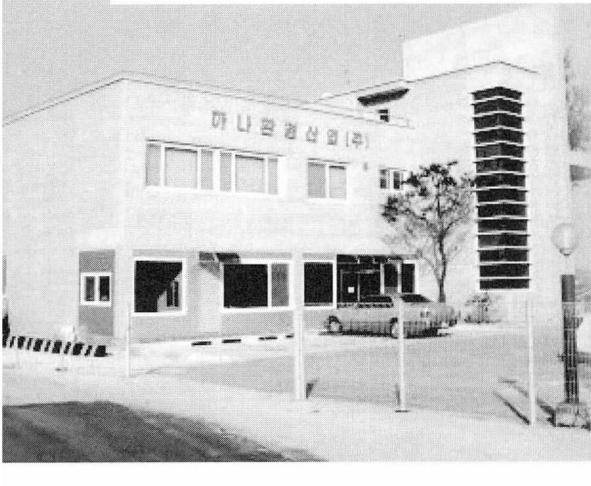


건설폐기물의 자원화에 올인

변화와 혁신의 글로벌 환경기업추구, 하나환경산업(주)



4월 6일, 순환골재 품질인증 획득, 기술력으로 업계를 선도한다

1992년 합자회사 대일환경을 시작으로 협력단신 환경산업에 뛰어들어 1997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취득한 후 업계 최고 수준의 순환골재를 생산하고 있는 하나환경산업(주) 원용한 대표이사. 고품질 순환골재를 생산하기 위한 지난 10년 간의 끊임없는 도전과 지칠 줄 모르는 노력으로 하나환경산업(주)을 기술혁신기업으로 성장시켜 왔다.

순환골재의 질적향상도모에 주력해온 그는 지난 2006년 신기술 2건과 신제품 1건을 동시에 인증 받는 등 순환골재 자원화를 위한 결실을 거두기도 했다. 특히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과감한 설비투자를 통해 하나환경산업(주)을 업계 선도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경쟁사와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공격적 기업운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하나환경산업(주)을 소개한다.

기술과 품질로 업계 경쟁력 확보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군량리에 위치하고 있는 하나환경산업(주)은 지난 1997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허가를 득한 후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2001년)과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2002년), 사업장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2005년) 허가를 차례로 득하며 환경 분야의 글로벌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인간과 환경은 하나”라는 기업 이념에 충실했던 헌신과 재생 및 재활용을 통한 쾌적한 자연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하나환경산업(주)은 전 직원이 환경산업의 파수꾼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기술과 품질의 질적향상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 2005년에는 환경친화기업이라는 이미지에 걸 맞는 사옥 겸 연구동을 신축하는 등 사업장 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폐기물처리업은 아직까지도 혐오시설이라는 인

식이 만연합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처리업체가 먼저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콘테이너 박스나 조립식 건물 한 동 지어놓고 환경친화 기업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기술력과 환경친화를 공언하는 입장에서 연구실을 겸한 사옥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공격적인 기술개발과 시설투자가 성장 동력

“최근 분위기를 보면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지고, 사회·문화·경제·정치 모든 분야에서 환경을 떼어 놓고 이야기하기 힘들어 졌습니다. 사실 사업초기인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환경에 대한 국민인식은 후진성을 벗지 못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천연골재를 대체할 소중한 자원이라고 하는 순환골재의 원료가 되는 건설폐기물은 대부분 무분별하게 매립처리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사실 기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생산된 재생골재는 요즘 건설현장에서 이동식파쇄기로 생산해 재활용하는 골재처럼 안전성 및 품질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때문에 주 수요자라 할 수 있는 건설업계 등에서 순환골재의 사용을 기피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선견지명이 있던 원 대표는 건설폐기물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원화에 옮기겠다고 판단하여 단순 처리가 아닌 기반 인프라를 확장하는데 주력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기술개발과 시설투자였다.

원 대표는 한 번 목표를 설정하면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더라도 포기하거나 돌아가는 일이 없었다. 그 중에서도 기술개발에 대한 원 대표의 확고한 의지는 오늘의 하나환경산업(주)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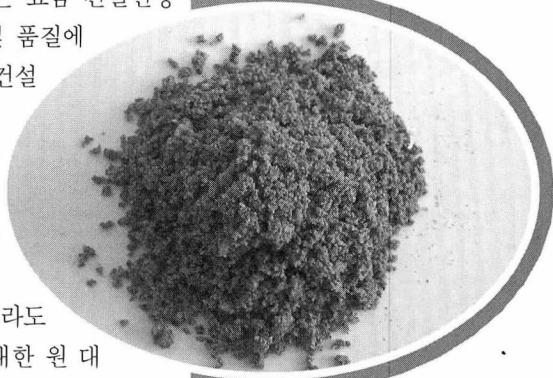
각종 신기술·특허 보유,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밀거름

“동종업체와의 경쟁력은 시설투자도 필요하겠지만 수요처가 요구하는 양질의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사업장에 필요에 의해 만든 기술을 협약해서 우리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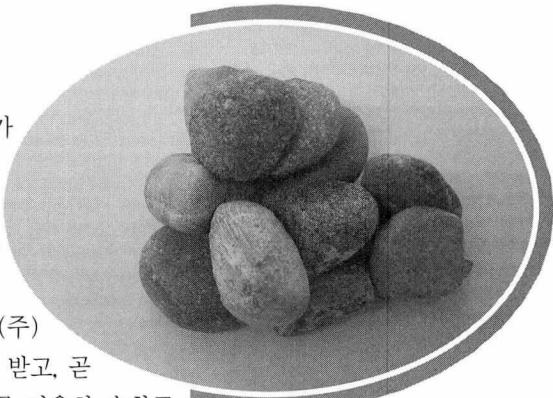
이러한 일념으로 기술개발에 수년간 매진한 하나환경산업(주)은 지난 2006년 1월 과학기술부로부터 최초로 신기술을 인증 받고, 곧 이어 동년 6월 “초음파 발진기와 골재 진동판이 적용된 수조를 이용한 순환골재의 이물질 및 미분 제거기술”을 개발하여 환경부로부터 중간처리신기술로 인증을 받으며 단순 처리업체가 아닌 기술경쟁력을 갖춘 업계 선도기업으로



▲현장 점검중인 원용한 대표



▲순환잔골재



▲순환굵은골재

발돋움하였다.

동 기술은 수조에 투입된 재생골재의 표면에 부착된 이물질 및 미분 등을 초음파 발진기와 골재 진동판을 적용하여 분리·제거하고 재생골재와 이물질을 상호 반대방향으로 배출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로서 순환모래 생산시 품질을 저하시키던 모르타르를 거의 완벽하게 제거해 준다.

그 결과 하나환경산업(주)에서 생산되는 순환골재는 수요처로부터 먼저 그 우수성을 인정받는 등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환경산업(주)은 다수의 국내외 특허와 실용신안, 이노비즈, ISO14001, 환경마크인증 등을 보유함으로써 진정한 기술집약적인 회사로 근간을 마련하였다.

이 같은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하나환경산업(주)은 지난 4월 6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도로공사용에 적용할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나환경산업(주)이 취득한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업계 4번째로서 업계의 기술력과 순환골재의 품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순환골재의 사용 활성화 절실

“우리나라는 천연골재 등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입니다. 강자같은 이미 고갈되었고, 해사마저도 환경문제로 채취가 어려운 실정이며, 중국과 북한산 모래수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순환골재의 사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비춰볼 때 고품질 순환골재를 천연골재의 대체재로 사용한다면, 석산개발로 인한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고, 사회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건설폐기물의 불법처리 등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 대표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과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 의무사용량 고시’ 등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용도에 대한 규정미비로 인해 순환골재의 실사용율이 저조하다며, 순환골재의 사회·경제·환경적 가치를 역설했다.

또한 원용한 대표는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이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선 환경인 스스로가 긍지를 갖고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건설폐기물의 자원화에 보다 매진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